

國家論의 概要(九號續)

鮮于

分立이라 함은 右述함과 如히 一의 國家로 分하여 二個以上の 國家됨을 云함이니 或은 統治의 方法이 不宜함을 爲하여 其國은 分裂하며 各 諸侯 獨立하여 一 國家를 成흔 事有하니 例컨디 中世에 「프링크」王國이 分裂하여 佛, 獨의 國이되고 或은 國의 一部가 分離하여 一의 國家를 成흔 事도 有하니 例컨디 「짜루안」半島에 土耳其希臘 等の 關係가 是오 或은 所謂 封土로 因하여 一國을 成흔 事도 有하였시니 現今에는 封土하는 事無하고 中古封建의 時代에는 軍功其他의 勳功을 報하기 爲하여 土地를 割與하여 王을 封흔 事도 歷史上에 顯著흔 事라.

合同이라 함은 前에 述함과 如히 二個 以上の 國家가 合併하여 一國을 成흔 者]를 云함이니 通常 此를 聯邦 及 聯立의 二者]로 分하느니 聯邦이라 함은 二個 以上の 國家가 相合하여 外部에 對하여는 一國이오, 内部에 在하는 各國家의 自身이 各各政權을 握흔 國家를 云함이니 獨逸聯邦 及 北米合衆國과 如흔 者]는 此에 屬하고 又 聯立이라 함은 二個 以上の 國家가 相合하여 一의 國家를 成하고 又 同一의 君主를 戴함을 云함이니 奧太利, 瑞典, 諾威와 如흔 者]는 卽 此에 屬하느니라 (後章에 詳論함)

右述한 外에 移住(殖民)로 以하여 國家創立의 源始되는 者]도 有하니 上古 及 中古에는 移住로 因하여 土地를 占領하고 國家를 創立한 者]多하였시니 世界에 交通이 便宜한 今日을 當하여야는 此로 從하여 國家를 成하는 者]少하니 北米合衆國은 移住로 始하였다 홀지로다.

上述한 外에도 國家 起源論에 就하여 許多의 論이 有하느 此에 記할 必要가 無하기로 茲에 省略함.

第四章 國家의 形體

國家의 本性은 主權에 在하니 列國이 同一한즉 此를 論할 必要가 無하느 然이느 主權 所在의 中心은 列國이 互相不同하니 例컨디 日本의 主權은 天皇에 在하여도 英國의 主權은 議會「國王 及 上下院」에 在하고 同一 國家에 도 時代를 隨하여 主權의 所在가 遷異하느니 例컨디 現今의 佛國은 革命以

前의 佛國과 同一의 國家로되 革命以前은 主權이 君主에 在호얏고 革命以後는 主權이 人民에게 歸함과 如함이 是라.

(一) 國家의 形體와 政府의 形體는 不同함이라 國家의 形體를 論함에 當호야 不可不先辨호 者 | 는 國家의 形體(國體)와 政府의 政體(政體)와 同一치 아니호니 卽 國家의 形體는 主權의 所在로부터 定호고 政府의 形體는 主權行使의 形式如何로부터 定호호니 例如主權의 所在로부터 言호면 日本은 君主國體로되 主權行使의 形式으로 言호면 日本은 立憲代議政體오, 又 英國은 昔時에 在호야는 主權이 君主에 在호 故로 君主國體라 호여시호 現時에는 主權이 議會(國王 及 上下院)에 在호 故로 名은 王國이호 其實은 共和國體라 謂치 아니치 못호지라 又 現今에 獨逸도 然호야 名稱은 帝國이로되 其 皇帝는 普國王이 世襲호여도 獨逸皇帝는 主權者가 아니라 何故오, 彼는 防戰의 境遇와 宣戰의 權이 無호고 又 立法함에 不裁可호는 權이 無호지라.

古代의 國家에는 國家와 政府의 區別이 無호고 政府는 卽 國家라 更言호면 政府는 國家의 全權을 掌握호고 毫末도 制限호는 바 無호 故로 古代의 政治學者는 國體와 政體를 區別치 아니호고 二者를 混淆立論호더니 「아리스도 돌」氏가 國家의 最高權은 或 一人에 存호며 或 少數者에 存호며 或 多數者에 存호다 唱道호 以來로 三種의 政體를 正當호 者 | 로 認識호호니 卽 君主制, 貴族制, 立憲民主制가 是라 此 三者는 社會公共의 福祉를 目的함으로 被治者의 利益은 犧牲에 供호고 唯治者만 利益을 計호 者아니라 故로 此를 稱호야 正當호 政體라 云호이라 此外에 三種政體가 變形호야 墮落호 者 | 有호니 僭主制, 寡頭制, 非立憲民主制라

僭主制라 함은 君主制의 變形墮落호 者 | 로 惟 君主一人만 利益을 主호는 者 | 오,

寡頭制라 함은 貴族制의 變形墮落호 者 | 로 惟 貴族少數의 利益만 主호는 者 | 오,

非立憲民主制라 함은 正當호 民主制의 變形墮落호 者로 惟 人民多數의 利益만 主호는 者 | 라.

「아리스도 돌」氏가 此外에 又 混合政體가 有함을 論호였시니 「바루다」와 如호 國은 上으로 二人의 王이 有호고 下으로 元老院, 人民議會 等이 有호니 三種의 政體를 混合호 者라 謂호지로다.

然이호 近世의 國家는 漸次로 國家와 政府를 區別호 以後로 政府의 權은 國家에게 制限되야 國家의 機關됨이 實現함에 至호지라 故로 學者도 亦 國體와 政體를 區別함이 有호고 佛國 포단氏가 主權論에 端緒를 開호 同時에 國家의 形體와 政府의 形體를 區別호고 主權은 全 人民 又는 貴族 或은 君

主에게存함이可함을 唱道하니 但 國體는 民主制로 政體는 君主制로 論흔지라 例컨디 全 人民이 國王을 選舉하는 境遇와 如함이 卽時라 獨逸의 아룻츄쓰는 國家의 主權은 常히 人民에 存在흔 故로 國體는 一이 有하고 二가 無하며 唯 政體만 相異함이 可하다하고 佛國學者 「루소」氏는 「아룻츄쓰」의 說을 採하야 主權은 常히 人民의게 在흔 故로 國體는 唯 民主制 一이오, 政體는 君主制, 貴族制, 民主制의 三者로 分헛였다 ㅎ느니 如此히 近世學者가 國體, 政體를 論함에 當하야 「아리스도 돌」氏의 例를 效하야 二者를 混淆하는 者 | 尙今도 多흔지라 或은 「아리스도 돌」氏의 三種 政體論으로 以하야 政治上 不動의 原則으로 ㅎ며 或은 此로 以하야 事實에 不適흔 바 排斥하는 者 | 有하야 議論이 粉紜하야 아직 容易히 歸着흔 바 無흔지라 然이느 「몬데스큐」氏는 共和制, 君主制 及 專制의 三者 | 라하고 「츠라이쥬케」氏는 神權制, 君主制 及 共和制의 三者 | 로 分헛였시니 「몬데스큐」와 「츠라이쥬케」兩氏가 共히 共和制를 貴族共和와 民主共和의 二者 | 로 分헛였시니 但 此의 區別은 其 根本되는 原則에 統一치 못흔는 바라 「몬데스큐」氏의 共和制와 君主制의 區別은 主權者 | 人數로 以하야 原則을 定하고 專制는 寧히 政權行使의 形式으로 君主制와 異히 ㅎ 썬이오, 「몬데스큐」氏의 神權制와 君主制의 區別은 一은 人間以外의 神權으로 基因하고 一은 人間固有의 權利로 從하야 管轄하는 差異가 有하여도 神權制와 君主制의 間에는 共通의 性質이 有하고 猶 貴族制와 民主制를 共和制의 下에 綜合하야 得함과 如함이라 何者오, 神權政治의 主權은 神意가 아니오, 神意로 發表하고 或은 解釋하는 法王에 存하야 主權은 旣히 法王에 存흔 以上은 君主制와 異흔 者無하고 又 僧侶의 合議로 神意를 發表하고 解釋하야 施行하면 是를 神權 共和制라 云하느니라. (未完)